4 장. 악마, 마귀, 그리고 세상의 종말

A. 주제(Thesis)
- 이원론의 등장은 사람들의 우주관, 하느님 이해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.
- 그 대표적인 예가 악마의 존재고 이를 멸하는 것이 (신학적) 지상 과제로 등장.

B. 문제점(Problems)
- 악의 문제.
  - 이스라엘 포로기. 우째 이런 일이?
  - 개인, 사회, 구조적 악에 관해 (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현장)
- 해결책 제시—어떻게?

C. 논점(Argumentation)

1. 일원론에서 이원론으로
   - 로마세계관은 일원론(一元論, monism). 신과 인간을 포함 모든 우주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, 악마도 또 악마를 위해 일하는 귀신도, 천국도 지옥도 (필요) 없었다(142).
   - 二元論(이원론, dualism)은 하느님과 악마가 최후 "종말" 때까지 투쟁하며, 우주는 이 둘의 끊임없는 분쟁 속에 처해 있다.

2. 전쟁 신화(combat myths)
   - 고대 근동의 신들의 투쟁
     - 에누마 엘리수(*Enuma Elish*). 마르둑 vs. 티아맛
     - 이집트=> 죽음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저승을 주관하는 아포피스(Apophis)와 태양신 레(Re)와의 반복된 싸움.
     - 가나안 폭풍의 신 바알과 얌(바다)/모트(죽음)의 싸움
     - 더보기. 전쟁신화와 지배체제(Domination system). =>**"Facing the Myth of Redemptive Violence" by Walter Wink** http://www.ekklesia.co.uk/content/cpt/article_060823wink.shtml
   - 포로기와 페르시아 이원론
     - 일원론적 우주관에서 신(들)의 권한과 역할은 세 영역으로 분배(공존)=> 하늘, 땅/바다, 저승
     - 기원전 6 세기 이스라엘 포로기와 함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(Zoroastrianism)를 소개.
     - 두 가지 형태의 조로아스터교: ①아후라 마즈다가 성령과 악령의 쌍둥이 자식을 유출(流出); ②영원부터 (창조되지 않고) 존재한 쌍둥이.
     - 세상은 이들의 싸움을 위한 전쟁터로 만들어졌고 언제고 악마가 패해 지옥불에 던져지면,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부활한 의인들의 처소로 신축(148).
     - 비로소 하느님이 악마로 표현되는 대적을 갖게 되었다. Cf. 사 45:6-7; 1QS 3:25 (147-148).

3. 악마의 등장
   - 악마(devil)는 그리스어 디아볼로스(διάβολος), 히브리어 싸탄(שָׂטָן)을 번역한 말로 하느님의 대적을 의미하지만, 고대 그리스어에는 악마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. (히브리어 사탄도 마찬가지. 단지 "참소/비방하는 자"라는 뜻)
     - 그리스인 뿐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를 제외한 어느 문화도 악마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(152).
     - 유대의 지도층들은 전통 신학에 입각하여 포로기 원인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돌렸다. 부활, 내세, 악마의 개념이 갖고 있지 않았고 이런 전통이 예수 당시 사두개인들에게로 이어진다.

  - o 다른 유대인들은 점차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 영향을 받아 야훼의 경쟁자인 바알을 신약성서의 바알세불처럼, 악마와 동일시했다. (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의 "땅밟기"로)
- 천상회의와 전쟁신화에 근거, 지위가 낮은 신적 존재들이 자의로 선택한 죄의 결과가 악이고, 악마란 이런 전쟁신화에 등장하는 무서운 적을 가리키게 된다.
  - o 종종 타락한 천사로 이해(창 6:1-4; 에녹 1 서 6-16)=> 아자젤을 에덴동산의 뱀과 동일시. 본래 뱀은 생명, 지혜, 부활의 상징이었지만, 후기 이원론의 등장과 함께 악마와 짝짓기.
  - o 아담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아담을 경외하도록 명령받았다는 사실이 천사들의 시기를 샀고, 반역을 일으켜 어둠의 권세도 자리매김한다. 결국 "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악마의 시기 때문"(지혜서 2:24)이다.
  - o 성서에 악마와 사탄은 그 뜻에 특별한 차이 없이 서로 바꾸어 사용. 예.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"사탄"(막 4:15) 혹은 "악마"(눅 8:12). 마 13:19 는 단순히 "악한 자"(ὁ πονηρός)//6:13.
- 악마와 세상 권세
  - o 온 세상이 악마의 영향아래 있다. 악마는 "이 세상의 통치자"(요 12:31)로 예수께 "천하만국"을 약속했다(마 4:8-9).
  - o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"사탄의 권세"(행 26:18), "흑암의 권세"(골 1:13)에 대해 예수를 필두로 세상에 침입함과 같다.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(요 3:17).
  - o 예수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마귀("더러운 영")를 추방하는 일이다(막 1:21-28). 이들의 "힘센 자"(막 3:27 ; 마 12:28-29; 눅 11:21-22)가 악마에 해당한다.
- 마귀
  - o 일원론 문화 속에서 마귀(demon < Gr. δαίμων)는 지위가 낮은 신들이 총칭으로 올림피아 신들의 심부름꾼에 해당. "제우스 신은 인간을 감독하는 삼만(三萬)의 영들(spirits)을 갖고 있으며, 이들은 안개로 옷입은 채 땅위를 돌아다니며 잘못된 판단과 행위를 주시"한다(172).
  - o 이원론 사상의 등장으로 마귀는 악마의 종으로 활동. 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이몬과 다이모니온(δαιμόνιον)은 "악마와 손잡은 마귀"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다(177). 조로아스터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, 이스라엘의 하느님 외의 모든 신들은 마귀로 탈바꿈.
  - o 인간을 사이에 두고 악마와 (선한) 하느님과의 경쟁에서 악마는 마귀를 부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. 예전에는 죄가 늘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었지만, 이제는 악마와 마귀가 죄의 근원이요 죄악의 화신으로 탈바꿈.

4. 종말론(Eschatology)
- 세상의 종말
  - o 이원론이 가져다 준 결과는 악마는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한다는 생각 =>우주론적 종말론 등장. 예전에는 종말론이 존재하지 않았다. 쳐부술 악마나 마귀가 없었기 때문.
  - o 이스라엘 역시 "영원한 언약"(창 17:7; 삼하 7:13)과 "회복"(신 30:3)을 믿었지만, 포로기 이후 사상의 점진적 변화.
- 새 하늘과 새 땅
  - o 새로운 창조의 필요성. 과거의 창조를 실패로 인식. 악마가 <하느님의 강>에 흘러들어오면서 우주관의 변화를 가져온다.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던 세상이 더렵혀졌다는 이해. 이를 제거함으로 깨끗함을 회복하며, 그 결과는 "새 하늘과 새 땅" (사 65:17; 계 21:1).
  - o 불로서 파괴 및 정화. 기원전 4 세기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우주의 순환: 불, 공기, 물, 흙 => "그 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 버릴 것입니다"(벧후 3:12).
- 적그리스도(Antichrist)
  - o 두 가지 자료에 근거: ① 안티로쿠스 에피파네스 4 세(166 BCE); ②네로 황제(68 CE).
  - o 알렉산더 대왕(334-323 BCE)과 그 후계자들에의해 그리스 사상의 모나드(Monad)가 유대 지식층 계급에 흡수. 유대인 동조자들과 전통주의자들 간의 갈등=> 마카비 전쟁으로 확대.

- o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에게 향한 악성 루머를 없애기 위해 당시 미움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(Annuals 15:44). 교회를 핍박한 첫 번째 사례. (캐사르 네로[נרון קסר]와 666 이해하기)

D. 평가(Critique)

- 전통적인 신들의 세력 다툼, 전쟁신화에서 유일신론이 등장함에 따라, 신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구분. 이원론에서는 악마의 필연성으로 발전.
- 악의 문제(The problem of Evil)에 대한 가장 간명한 답 제시. 어떤 해결책도 이처럼 산뜻하게 악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. (신학적 우수성을 강조함이 절대 아님!)
- 니캐아-콘스탄티노플 신조(325-381)에서는 종말론에 관해 단지 "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"에 관해 말한다. 지혜롭게 말을 아꼈지만, 그 애매모호함은 설명을 요했고, 여러 오해를 낳는 빌미를 제공.

생각해 보기

1. 나는 죄/악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?

2. 악마/귀신을 믿는가? (가능한)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.